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. 1. 2.(화) 10:00

[2024년 보건복지부 정책 돋보기]

분산된 자살예방 상담전화

1월 1일부터 '109'로 통합 운영

- “이제 마음이 힘들 때 '109'로 전화주세요” -

- 문자로 대화하는 SNS 상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제공 -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자살예방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쉬운 3자리 자살예방 상담전화 [109] 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. [109] 는 119와 같이 자살이 ‘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’이라는 인식을 주며 ‘㉠ 한 명의 생명도, ㉡ 자살 zero, ㉢ 구하자’ 라는 의미를 갖는다.

기존의 자살예방 상담번호 [1393] 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으나, 인지도가 낮고, 상담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전화(1577-0199), 청소년 상담전화(1388) 등을 함께 안내해왔다.

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로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.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함께 논의하여 힘들 때 바로 생각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긴급번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. 이에 따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('23.12.5 발표)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상담번호 [109] 를 개통하였다.

[109] 는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삶의 희망을 돌아주고, 112 등의 긴급 출동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등 자살예방 기능을 수행한다. [109] 운영으로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현재 80명인 전화

상담사를 100명으로 증원하고, 하반기부터 통화보다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소년·청년을 위한 문자, 메신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.

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“언제든지 상담과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[109]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- <붙임> 1.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[109] 로고 및 자살예방상담센터 현황
 2. 2024년 자살 사건 보도 시, 안내문 관련 협조 요청 사항
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두리 (044-202-3890)
		담당자	사무관	정호진 (044-202-3899)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	책임자	센터장	김용규 (02-510-2620)
		담당자	사무관	정웅구 (02-510-2613)



▲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[109] 로고



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
당신 곁엔
109

▲ 자살예방 상담센터



※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[109] 운영에 따라 '24년 1월부터는 자살 사건 보도 시, 자살예방 관련기관 정보나 긴급도움 요청 관련 다음의 '안내 문구' 삽입 협조 요청

【 안내 문구 】

"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·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☎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"

○ 변경 사항

기존	변경
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·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☎1393, 정신건강 상담전화 ☎1577-0199, 생명의 전화 ☎1588-9191, 청소년 전화 ☎1388, '청소년 모바일 상담 '다들어줄 개' 어플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	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·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☎109 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